

넥스트바이오메디컬, 산자부 '2023 우수기업연구소'로 발탁

- ▲속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한 관절염 치료제 개발로 ACT+ 선정
- ▲속분해성 고분자 물질 제조 혁신기술 기반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개발 박차 기대
- ▲2024 IPO 및 글로벌 사업화 속도전 견인

<2023-07-12>

2024년 코스닥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이 산자부 주관 우수기업연구소로 발탁됐다.

혁신형 치료제를 개발 및 수출하는 넥스트바이오메디컬(대표이사 이돈행)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'2023년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(ATC+) 주관기업'에 선정되었다고 12일 밝혔다.

선정배경은 '속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한 관절염 치료제' 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.

'ATC+(Advanced Technology Center)'는 중소·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연구개발(R&D) 역량 향상을 지원·육성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. 연구소 성장 가능성과 기술사업화 역량을 중점 평가하며 올해는 신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AI, 혁신 바이오헬스 기술 등 미래전략사업분야의 과제를 집중해 선정했다.

속분해성 고분자 물질 제조 기술을 가진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 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인 Nexspher-F는 퇴행성 관절염(어깨, 무릎, 팔꿈치, 손목 등)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세포를 단시간(2시간-6시간) 내 분해되는 속효성 미립구를 사용하여 신경 세포를 과사시켜 통증을 감소시키는 제품으로 현재 한국 식약처(KFDA)와 유럽(CE-MDD)인증을 완료한 상태다.

넥스트바이오메디컬 이은혜 연구소장(CTO)은 "Nexsphere-F는 기존 글로벌 제약사의 관절염 색전 치료 제품과 달리 구형의 속분해 성능을 통해 화학적 가교제를 사용하지 않은 세계 최초의 속분해성 관절염 색전 치료 제품으로 이번 ACT+ 선정으로 기술경쟁력이 입증돼 기쁘다" 며

"현재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을 위해 미국, 유럽 등지에서 임상 실험을 추진중에 있고, 2024년 IPO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기반으로 사업화에 속도를 내 고속성장을 견인하겠다" 고 자신감을 피력했다